

“자기 보호, 애국 및 굴종: 위만 (偽滿, ‘만주국’) '협력자'의 심리 탐색”

장페이 (난카이대)

원문 중국어, 번역 : 홍용일

본문은 《웨이인심심-위만장교의 일기》(웨이인심심=鞞印深深: 차바귀가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깊은 자국을 의미-역자 주) 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이 일기 자료의 주인공은 1937-1945 년 사이 만주국 하급장교로 복무했던 시밍루이다. 주인공은 은연(隱然)하게 항일 행위를 보이기도 했지만,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국면 속에서 극도의 고뇌와 억압감, 막막함에 빠지게 된다. 일기는 그의 번뇌에 찬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일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민족국가 시각에서 점령지 역사를 해석해왔던 일원적인 인식구조를 타파하고자 한다. 일본군 치하의 강권정권에서 ‘만주국’의 ‘협력자’로 살아야 했던 생존 환경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민족주의적 감정을 부각하고, 점령지 인물의 취약하고 복잡한 인간 본성을 밝힌다. 본문은 '백피' (白皮) 가면 속의 주인공의 심리가 우환, 불안에서 수용, 순종으로 변화되어 갔음을 주장한다. 그 과정에는 또 분노, 굴욕, 회한이 점철되어가는데, 이는 동북지역 점령지 사람들의 심리를 표상하고 있다.

■ 장페이(江 沛/JIANG, Pei)

난카이 대학 역사학부 교수, 난카이대학 중외문명교차과학 연구센터 집행 주임. 중국 역사 학회 이사, 중국 현대사 학회 부회장, 텐진 역사 학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2014 년부터 2020 년까지 난카이 대학 역사학부 학부장을 역임했다. “중국 근대 교통사회사 총서”를 편저하고 일본 오사카대, 히로시마대, 타이완 정치대학 석좌교수를 역임. 주로 민국사와 중국 근대 사회사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 국가사회과학기금 수석 전무가로 항일전쟁 연구 특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다.

주요 저서: “전국정책파(戰國策派) 사조연구”, 천진인민출판사, 2001 년. “국민당 구조사론”(하권), 중화서국, 2011 년. "도시화 과정 연구"(중화민국 역사 총서 9), 난징 대학 출판부, 2015 년.